

東萊 福泉洞 22號墳 盛矢具의 임시 복원안

金昌鎬*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中國板形金具의 甬 |
| II. 복천동 22호분의 성시구 | V. 화살통의 복원 |
| III. 지금까지의 연구 | VI. 맺음말 |

I. 머리말

최근에 들어와 성시구의 연구는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시구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출토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복원안이 제시되고 있으며¹⁾, 성시구 자체의 착장위치나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는 방법 등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은 다소 소홀히 하였다²⁾. 성시구의 복원에 있어서 출토상황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성시구의 모든 부품들이 출토상황에 나타나지 않는다. 성시구의 부품가운데에는 금속으로 된 부분은 발굴조사 때 잔존하고 있지만 나무, 끈, 가죽 등으로 된 부품들은 거의가 썩어서 없어진 상태이므로 출토상황에 따른 복원에는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성시구의 복원에는 고구려의 고분의 벽화나 일본 하나와에 나타난 성시구의 착장모습이나³⁾ 당시의 화살 길이 등도 고려되어야 성시구의 정확한 모습이 복원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복원안이 제시된 바 있는 동래 복천동22호분 성시구의 복원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견을 밝혀보고자 한다.⁴⁾

* 慶州大學校 敎授 兼 博物館長

1) 지금까지의 성시구 연구사에 대해서는 全玉年, 1992. 「伽耶의 金銅製品에 관하여 - 盛矢具 研究 -」 『伽耶考古學論叢』 1 참조.

2) 이에 대해서는 金昌鎬, 1995. 「東萊 福泉洞 22號墳 盛矢具의 복원 문제」 『嶺南考古學』 17 참조.

3) 하나와의 화살통 착장 모습은 고구려 고분의 벽화와는 달리 왜곡되지 않는 점에서 중요하다.

4)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복원안은 복원의 즐거리일뿐 최종적인 복원안은 아니므로 장차 관계 자료를 모아서 또 다시 복원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복천동 22호분의 성시구

복천동 22호분은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에 위치한 복천동 고분군⁵⁾ 가운데 한 무덤이다⁶⁾. 복천동 구릉의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대형분 가운데 하나인 22호분은 구릉의 최정상부에 위치한다. 이 고분은 대형의 土壙木槨을 副槨으로 가진, 장축 방향 남북의 長方形石槨墓이다. 석곽 내부의 크기는 길이 480cm, 너비 160cm, 깊이 160cm 정도이다. 이 고분의 主被葬者 頭向은 南枕으로 되어 있다. 성시구는 被葬者의 머리쪽인 南短壁 가까이에서 서남 모서리에 매납되어 있었다(<그림 1> ①).

성시구는 내부의 목곽이 내려 앉거나 墓石 또는 側壁石 사이에 흙이나 물이 유입되어 들어올 때 받은 충격 등으로 서편의 절반 가량은 파실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비교적 원상을 잘 유지한 상태였다. 失筒部는 거의 전부 부식되고, 극히 일부분만 겨우 잔존하고 있어 출토 상태만으로 그 원상이나 材質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다만 여러 가지의 성시구들이 비교적 정연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성시구의 대체적인 모습을 추정해 볼 수가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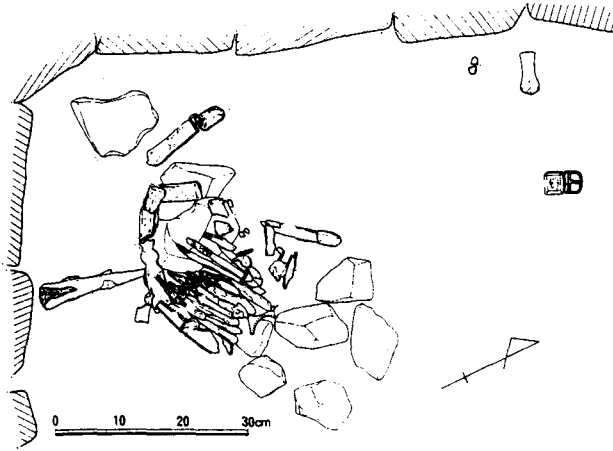
성시구는 남북쪽으로 넘어져 있었는데 가장 아래쪽에 성시구의 前面飾金具인 山字形金具, 그 안쪽에 曲玉形金具 2점이 있었고, 山字形金具의 兩側 上方에 성시구의 側面飾金具로 생각되는 卍字形金具 2점이 각각 놓여져 있었고, 2점의 卍字形金具 윗쪽에 絞具付中圓板形金具가 놓여 있었고, 絞具의 맞은 편에는 혁대를 장식한 것으로 보이는 方形帶金具가 1점씩 발견되었다. 성시구의 몸체부에서 북으로 45c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帶金具로 보이는 方形金具와 결합된 絞具 1점과 혁대의 先端飾金具 1점이 검출되었고, 부근의 圓底大壺 내부에서 方形金具 1점이 발견되었다. 山字形金具의 내부에는 莖部에 木質과 白樺樹皮가 부착된 상태의 16 개체분이 축신을 북으로 향하게 하여 일렬로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러한 출토 상태에서 화살을 일렬로 정연하게 담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②).

1. 山字形金具(<그림 1> ②-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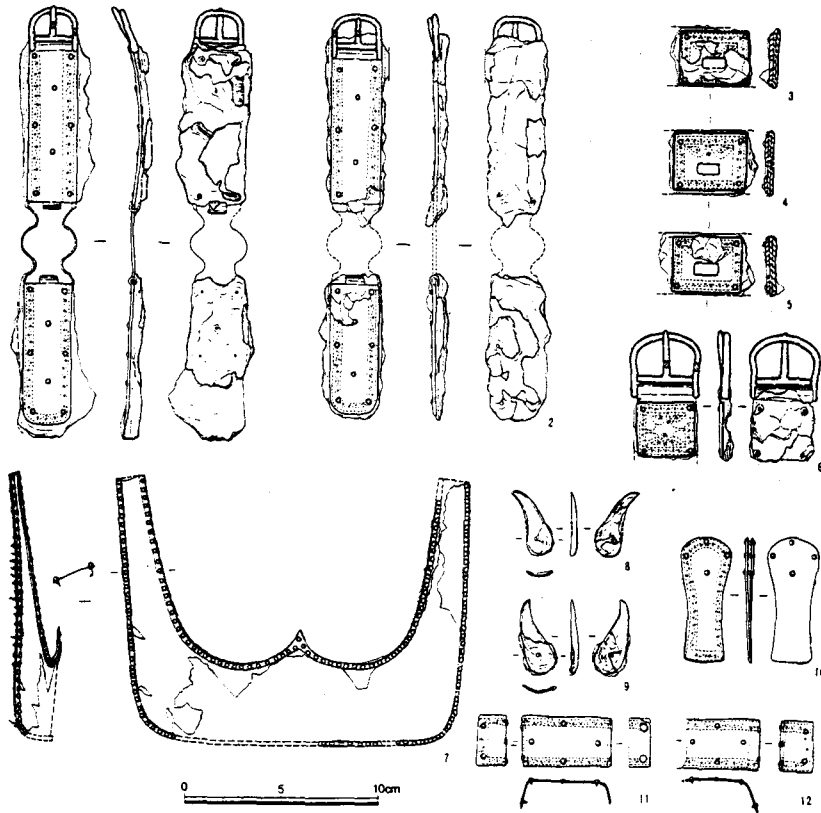
많은 부분이 파실되었으나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가 있다. 본 금구는 內緣과 外緣帶, 이 사이의 山字形簿板으로 3分되는데, 너비 3mm, 두께 1mm의 길다란 단면 장방형 띠로서 내연의 중앙을 上方으로 돌출시켜 山字形으로 만들었다. 외연은 U字形으로 만든 후, 두께 0.5mm의 山形簿板의 外緣에 앞에서 말한 띠를 대고 지름 2mm의 小形圓頭釘을 2mm의 간격으로 박아 상호 결합시켜서 완성하였고 內緣에는 같은 방법으로

5) 이 고분군의 중요성과 그 발굴 의의에 대해서는 全玉年, 1992. 「앞글」(주 1) 172 참조.

6) 이 장의 내용은 全玉年, 1985. 「東萊福泉洞22號墳出土 胡錄金具를 통해 본 胡錄의 復元」, 『伽倻通信』 11:12호에서 발췌하였다.



① 복천동 22호분의 성시구 출토 모습



② 복천동 22호분의 각종 성시구

<그림 1>

小形圓頭鉞⁷⁾으로 완성하였다.

復元高; 13.9cm, 復元最大幅; 22.2cm

2. 曲玉形金具 2점(<그림 1> ②-8·9)

山字形金具의 내측에서 출토되었다. 두께 0.5-0.7mm의 얇은 판으로 겹면은 오목하게 되어 있다.

길이; 3.9cm, 3.6cm 너비; 1.5cm, 1.4cm

3. ㄷ字形形金具 2점(<그림 1> ②-11·12)

山字形金具의 양측 上方에서 출토되었다. 좌측의 것은 1/3 가량이 결실되었다. 두께 0.5mm, 너비 2.6cm 가량의 帶狀簿板을 ㄷ字狀으로 양 끝을 접어서 만들었다. 상면에 지름 2mm 가량의 원두병이 박혀 있다.

左側의 것; 너비 2.6cm, 殘存高 3.9cm

右側의 것; 너비 2.6cm, 길이 4.7cm

4. 鉸具付中圓板形金具 2점(<그림 1> ②-1·2)

손목시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山字形金具의 兩側 上方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이것은 別造된 圭形金具 2매, 亞字形金具 1매, 鉸具 1매를 결합시켜서 만들었다. 圭形金具의 사이에 들어가는 亞字形金具 양 쪽의 끝 가까이에 길이 9.5mm의 細長方形孔을 뚫었다. 上下方으로 된 圭形金具와 연결되는 端部の 중앙에서 너비 9mm의 금동판을 길게 뽑아낸 후, 이것을 亞字形金具 兩端의 細長方形孔에 삽입시켜서 다른 면에서 고리상으로 말았다. 鉸具와의 연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上方의 圭形金具에 연결된 너비 1.9cm의 금동판을 鉸具의 外緣에 감아서 상호 결합하였다.

동편의 것; 全長 21.6cm, 너비 2.6cm

서편의 것; 복원 길이 20.6cm, 너비 2.6cm

5. 方形帶金具 3점(<그림 1> ②-3·4·5)

동편 中圓板形金具의 先端鉸具의 상대편에서 1점, 서편 중원판형금구의 상대편에서 1점, 인근의 大壺 내부에서 1점이 각각 출토되었다. 3점 모두 두께 1mm 가량의 長方形金銅板으로 제작되었는데, 내부에 너비 0.5-0.6cm, 길이 1.1-1.3cm 크기의 長方形孔을 橫으로 뚫었다.

길이; 3.7-3.8cm, 너비; 2.8-3.0cm

7) 원문에는 원두정이라고 했으나 영남대박물관 소장의 경산 입당 7-B호 출토의 화살통 부속구의 관찰 결과에 따라 원두병으로 바꾸었다.

이 밖에도 성시구의 본체에서 북으로 약 45c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帶金具 1組가 출토되었다. 이는 鉸具와 교구에 연결된 方形帶金具 1枚, 그리고 교구의 상대편 極대 先端飾金具가 인접해서 검출되었다.

Ⅲ. 지금까지의 연구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성시구의 연구는 관계 자료의 부족 등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겨우 명칭만이 소개되었고⁸⁾, 그 복원은 염두에 두지조차 못했다. 1977년 일본 간스塚에서 출토된 ㄷ자형금구와 중원판형금구의 출토상태를 正倉院의 호룩과 대비시켜서 호룩에 대한 최초의 복원안이 제시되었다.⁹⁾ 이 복원안은 출토상태에 충실하고 중원판형금구에 釘이 붙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학계에서는 중원판형금구를 나무에다가 붙여서 복원하는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ㄷ자형금구의 양쪽 밑에 붙은 화살통을 생략한 점을 그 뒤의 발굴성과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1980년 일본 구주지역 등에 살았던 하야토인의 무덤인 이른바 地下式橫穴에서 출토된 호룩금구에 대한 연구성과가 제시되었다.¹⁰⁾ 여기에서는 일본 千狗山, 무쓰구리山古墳 등에 출토된 山자형금구의 길이 13~14cm내외로 그 수치는 중원판금구의 길이와 비슷해 중원판형금구는 山자형금구와 같이 화살통의 前板에 장식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1년 뒤에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출토된 호룩을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¹¹⁾

첫째는 山字形금구를 전면에 붙이는 岡山縣 千狗山古墳과 같은 유형

둘째는 중원판형금구를 측면금구로 하는 兵庫縣 間스塚과 같은 유형

셋째는 帶狀金具가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된 八幡大塚 2號墳과 같은 유형

성시구의 복원에 있어서 중원판 금구가 측면에 붙는 가설이 통용되자 한국에서도 이에 준한 복원안이 1983년에 제시되었다.¹²⁾ 여기에서는 성시구를 어깨에 매는 것으로 해석한 점이 독특하며, 중원판형금구가 측면에 붙는다는 일본학계의 성과에 따라 두개의 복원안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이 복원안에서도 중원판형금구에 釘이 박힌 것으로 해석했으나 釘은 최종적으로는 나무에 박힌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말았다. 1985년 앞의 복천동 11호분 성시구 복원안 가운데에서 제2안¹³⁾을 모델로 해서 복천동 22호분의 성시구 복원이 (<그림 2> ①②) 시도되었다.¹⁴⁾ 이 복천동 22호분의 복원안은 복천동

8) 穴澤和光·馬目順一, 1973. 「羅州潘南面古墳群」, 『古代學研究』7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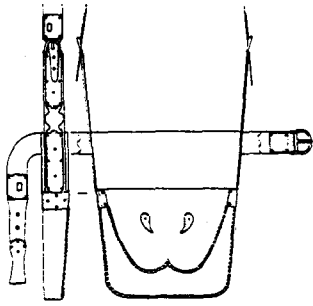
9) 野上丈助, 1977. 「武器·武具十六の謎」, 『歴史讀本』22-12.

10) 北郷泰道, 1980. 「地下式橫穴出土の胡錄金具」, 『宮崎考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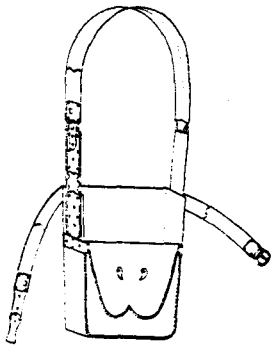
11) 北郷泰道, 1981. 「地下式橫穴出土の胡錄金具 -補遺-」, 『宮崎考古』7.

12) 鄭澄元·申敬澈,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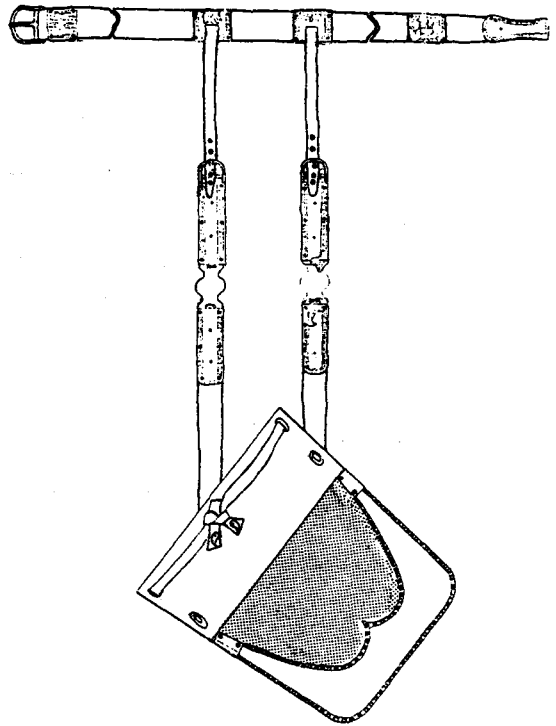
13) 鄭澄元·申敬澈,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I,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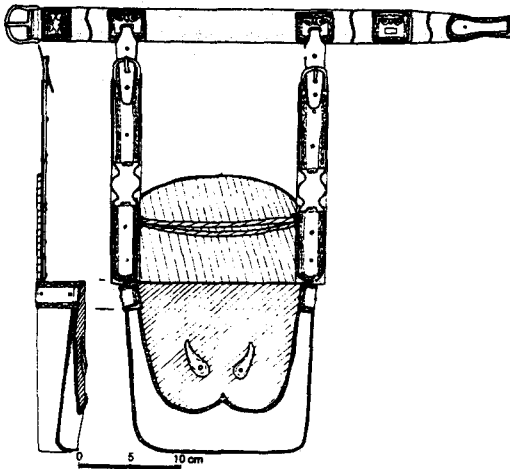
① 전옥년의 복원 제1안



② 전옥년의 복원 제1안(입체도면)



④ 최종규의 복원안



③ 전옥년의 복원 제2안



⑤ 신라토우에 붙은 활쓰는 사람의 모습 스케치

<그림 2>

11호의 제2안에서 곡옥형금구를 화살통의 전면에 붙인 것과 증원판형금구를 잇는 띠에 두 개의 교구를 붙인 점이 다르다. 이 복원안에서 어깨에 매는 띠에 두 개의 교구를 달아서 띠의 길이를 적절하게 한 점은 교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명백한 실수로 사료된다.

1986년 복천동22호분의 성시구 복원안에 대한 상세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성시구의 복원안이 제시되었다.¹⁵⁾ 여기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에 흩어져 있는 성시구 자료의 광범위한 제시와 함께 종래의 호록 대신에 성시구란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면서 복천동22호분의 성시구를 전용 벨트, 현수장치, 성시구 본체의 3부분으로 나누고, 우리나라의 성시구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I류: 동래 복천동 21·22호분 출토품이 지표이며, 산자형금구 등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다. 화살통 자체는 扁平狀이다. 경산 임당동 78호 출토품, 동래 복천동 10·11호 출토품(I類), 고령 지산동 34호 SE-3호 석곽출토품, 합천 옥전 23호 출토품, 창녕 도계동 19호분 출토품, 고령 지산동 39호 출토품 등의 예가 있다.

- II류: 동래 복천동 10·11호 출토품(II類)이 지표이며, 원형 또는 반원형의 筒狀物로 추정된다. 고령 지산동연결석곽 출토품, 지산동 33호 출토품 등의 예가 있다.

- III류: 동래 복천동 10·11호 출토품(III類)이 지표이며, 방형 또는 장방형의 통으로 추정된다.

1988년에는 동아시아의 고대 성시구를 집대성한 연구 논문이 나왔다.¹⁶⁾ 여기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성시구 자료의 제시와 함께 성시구 복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출토되고 있는 성시구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바, 증원판형금구의 교구에 따라 띠가 연장되어 직접 허리에 감는 일본의 하나와 방식과 교구에서 수직의 위로 연장된 두 줄의 띠가 허리에 연결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같은 해에 성시구란 용어의 사용은 반대하면서 성시구에 대한 상세한 실측도의 제시와 함께 일본 출토의 복원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견해가 나왔다.¹⁷⁾ 이 해에는 복천동22호분의 성시구에 대해 증원판형금구의 길이 차이에 주목하여 그 때까지의 성시구 복원안에 의문을 제시한 견해도 나왔다.¹⁸⁾

1990년 日本 奈良縣 地葛城郡 新庄町寺口に 소개한 寺口千塚3號墳에서 나온 출토상태가 좋은 성시구의 자료를 통해 성시구의 복원을 시도한 견해가 나왔다.¹⁹⁾ 여기에서는 증원판형금구를 공반하는 성시구의 계보를 작성하였다. 1992년에는 계속해서 일본에서의 도입기 호록을 증원판형금구와 산자형금구로 구성된 type(A류)와 증원판형금구와 산

15) 崔鍾圭, 1986. 「盛矢具考」, 『釜山直轄市立博物館 年報』 9, 57-58.

16) 早乙女雅博, 1988. 「古代東アジアの盛矢具」, 『東京國立博物館紀要』 23.

17) 田中新史, 1988. 「古墳出土の胡籙·靛金具」, 『井上コレクション 彌生·古墳時代資料圖錄』.

18) 金昌鎬, 1988. 「東萊 福泉洞22號 胡籙 복원의 현단계」, 『嶺南考古學』 5.

19) 坂靖, 1990. 「胡籙의 復元 -寺口千塚資料を中心として-」, 『古代學研究』 120.

자형금구로 구성된 type(B류)로 크게 나누었다.²⁰⁾ A류의 예로는 天神山7號墳(福井縣), 私市圓山古墳(京都府), 간스古墳(兵庫縣)등을 제시하고, B류의 예로는 內裏塚고분(千葉縣), 오쓰구리山古墳(愛知縣), 千狗山古墳(岡山縣)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분류 자체는 전제가 잘못된 분류이다.²¹⁾ ㄷ자형금구는 산자형금구와 공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자형금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ㄷ자형금구가 출토되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간스총과 같은 예는 ㄷ자형금구가 있으므로 산자형금구가 공반될 수 있는 유형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A류, B류로 나누어서 복원안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복천동22호분의 성시구에 대한 복원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 복원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원판형금구가 나무에 박히도록 한 것이다. 이 복원안에서는 중원판형금구의 도금부분이 길이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화살통에 화살을 담았을 때 허리띠에 매다는 허리띠 부분의 부품구멍이 너무 작아서 현수된 띠가 가는점 등은 쉽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92년 寺口千塚3號 출토의 성시구에 의해 제시된 복원안에 따라 복천동 22호분의 복원안을 제시한 견해가 나왔다.²²⁾ 여기에서는 성시구를 산자형금구를 공반하는 유형과 帶輪狀金具를 공반하는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복원안 자체는 너무도 쉽게 일본측의 연구성과를 수용한 점이다. 곧 이 복원안과 寺口千塚3號 사이의 차이점은 矢柄固着具가 있는 점, 중원판형금구가 나무에 안 박히도록 복원한 점, 東垣구장 토우의 예(<그림 2> ⑤)에 따라 성시구의 뒤판을 복원한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두 복원안이 꼭 같다.

1995년 지금까지의 복천동 22호분의 복원안들을 비판하면서 釘과 鋌의 사용처, 화살통의 착장위치와 화살을 화살통에서 빼는 방법 등에 의해 일본과 한국의 성시구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견해가 나왔다.²³⁾ 여기에서는 고대 중국, 한국, 일본에 있어서 화살통을 착장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산자형 성시구를 오른쪽 허리에 차고 화살을 뒤로 하였다가 다시 위로 앞으로 빼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0) 坂靖, 1992. 「胡錄の系譜」 『考古學と生活文化』 -同志社大學考古學シリーズ V-

21) 全玉年, 1992. 「앞글」 (주 1)의 결론에 따르면 ㄷ자형금구가 나오는 곳에서도 대개 산자형 금구가 공반하고 있다.

22) 全玉年, 1992. 「앞글」 (주 1).

23) 金昌鎬, 1995. 「앞글」 (주 2).

IV. 中圓板形金具의 못

한국과 일본의 山자형 성시구 복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원판형 금구에 박힌 못에 대한 부분인 듯하다. 일본학계에서는 간스塚의 복원 이래로 釘이 박힌 것으로 보고서 반드시 나무에 박히도록 복원하고 있다.²⁴⁾ 한국학계에서는 釘과 鉞의 구분이 없이 대개 가죽 등에 박히는 것으로 복원하고 있다. 중원 판형금구에 박힌 못의 종류가 釘인지 아니면 鉞인지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수많은 중원판형금구에 못이 박힌 채로 발견되었지만 못의 끝이 가늘기 때문에 정인지 병인지의 구분은 극히 힘들었다. 다행히도 그 편린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경남 합천군 玉田 M3호분의 석곽분인 주곽에서 출토되었다.²⁵⁾ 석곽은 길이 10.6cm, 너비 2.7cm, 높이 1.5cm-1.6m로 가운데에 두께 0.8m, 높이 1.3m의 간벽이 있으며, 화살 관련 자료가 나온 주곽은 길이 5.2m, 너비 2.7m이다. 주곽에는 금동장식의 안고, 용봉장환두대도 등 수많은 화려한 유물의 출토되었다. 주곽의 철축은 모두 400여점이 무리를 이루며 10개의 군으로 나뉘어 출토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화살통과 함께 발견된 것도 5개군이며, 화살통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개군이 있다. 철축들은 대개 피장자의 좌우와 머리쪽에서 출토되었으며, 발치 쪽에서는 1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철축군 I는 피장자의 왼쪽에서 떨어져 장벽 가까이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35-40점으로 추산된다. 이 철축군 I의 왼쪽과 주위에서 교구, 중원판형금구, 대륜상금구, 심엽형금구 등이 발견되었다.

중원판형금구(<그림 3> ①)는 철제로 전면에 은도금된 못을 박아 고정시켰는데, 뒷면에서 革質이 鑄着되어 있으며, 앞면에는 細布가 투착되었다.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거의 완형이며 전체적으로 휘어졌다. 한쪽에는 침이 없는 교구가 부착되어 있고, 반대쪽은 7자형으로 철판을 구부러서 마무리했다. 길이 22.2cm, 너비 2.2cm, 두께 0.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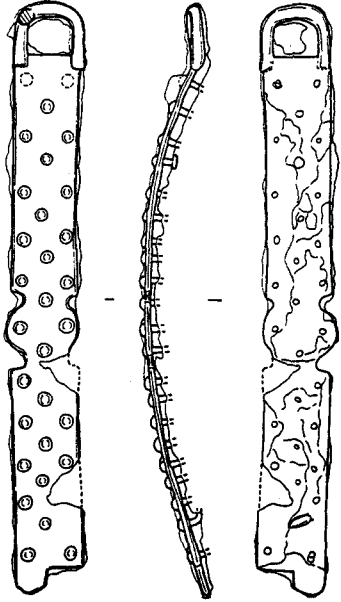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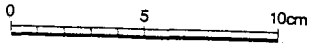
대륜상금구는 철축의 위 아래에서 발견되었는데, 鑄化가 의해 심하게 파손되었다. 너비 1.5cm의 얇은 철판(두께 0.2cm)위에 여러개의 은도금된 釘을 박아서 고정시켰는데 파손이 심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4곳에서 꺾어지면서 전체적인 단면은 장방형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뒷면에는 혁질이 鑄着되어 있다.

심엽형금구: 금동제로서 8개의 鉞이 박혔는데 못은 흔적만 남았다. 가운데에 橫長方形의 구멍이 있으며, 周緣에는 斜線文帶가 들어 있다. 뒤면에는 革質이 鑄着되어 부분적으로 잘 남아 있다. 外徑 3.4 2.7cm 교구는 앞의 심엽형교구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針輪 일부가 결실되었다. 평면5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비교적 길며 전체적으로 옷칠이 되었고, 한 부분에는 細布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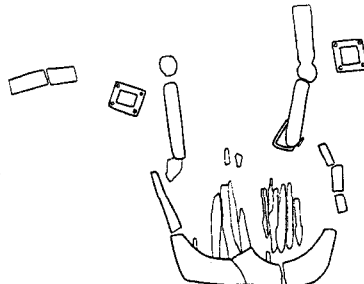
24) 이렇게 치밀하게 유물을 관찰하는 방법은 우리 학계가 배워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5) 慶尙大學校 博物館, 1990. 『陝川 玉田古墳群』II,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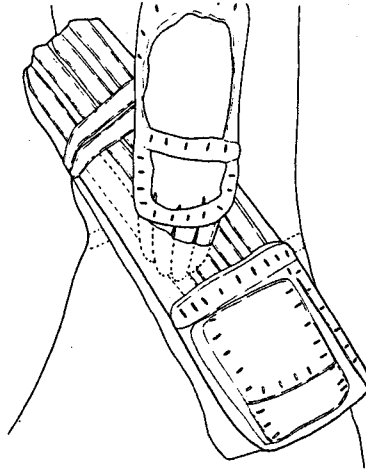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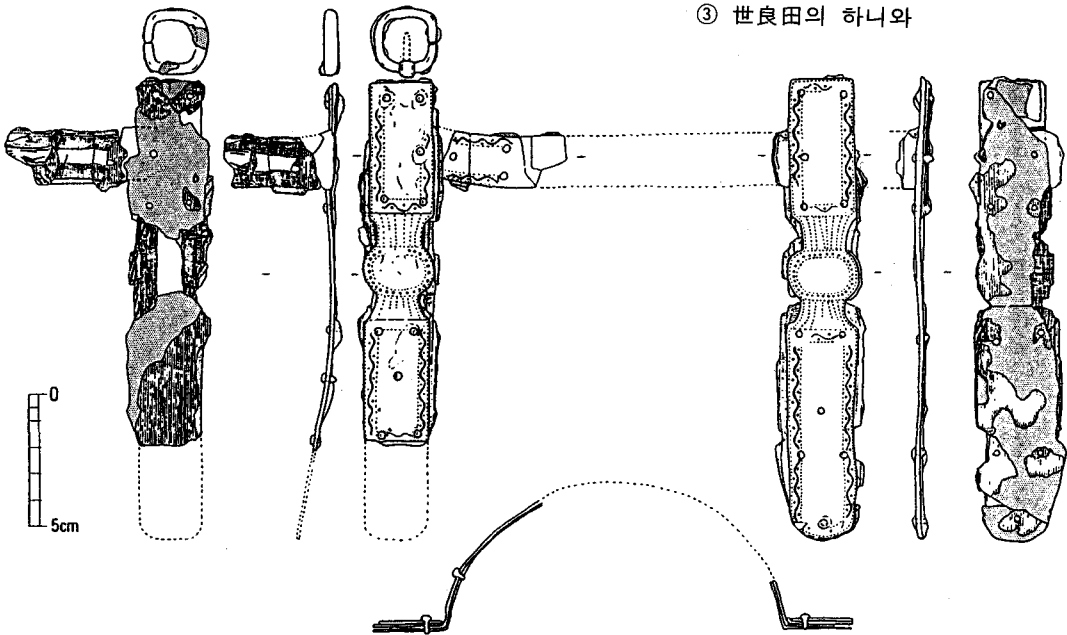
① 陝川 玉田 M3 중원판형금구



② 도계동 19호분 성시구 출토 모습



③ 世良田의 하니와



④ 寺口千塚 3號墳의 성시구 결합 모습

투착되어 있다. 길이 5.3m, 최대 너비 3.4m 옥전 M3 I호 화살통의 증원판형금구에서 한·일 고분 출토 성시구의 복원에 중요한 증원판형금구의 못이 일본학계의 통설대로 釘이 아닌 鉞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山자형금구가 공반되지 않아서 山자형금구와 공반하는 증원판형금구의 못의 종류가 무엇인지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을 수가 있다.

1996년 5월에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경산 입당 7-B호 출토의 화살통의 부속구 자료들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²⁶⁾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본 자료에서 山자형금구의 바깥쪽은 전부가 釘이었으며 안쪽의 못은 鉞이었고, ㄷ자형금구의 못과 증원판형금구의 못은 모두가 鉞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좋은 자료들에 따라서 살펴보면 일본학계에서 줄기차게 믿어왔던 증원판형금구의 못은 釘이 아니라 鉞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된 일본 측의 성시구 복원안은 전부가 그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V. 화살통의 복원

이제 복천동 22호분 출토 성시구의 복원을 시도할 차례가 되었다. 각 부속구들의 위치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山자형금구가 화살통 몸체의 전면임은 분명하다. 단 山자형 금구의 안쪽의 못은 鉞이고, 바깥쪽의 못은 釘임을 근거로 할 때 전면에서 山자형의 범위 안쪽에만 가죽이 붙고 山자형의 바깥쪽부분에는 나무와 가죽을 동시에 붙으면, 釘이 사용됨을 주의해야 될 것이다. 곧 山자형금구의 바깥쪽으로 따라서 V자형의 나무가 안 쪽에 붙는다.

둘째로 ㄷ자형금구에는 鉞이 붙어 있으며, 山자형금구의 위쪽 양 끝에 붙어서 가죽으로 화살통의 몸체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로 곡옥형식금구는 山자형금구의 내측에서 출토되어 지금까지는 시병고정장치의 가죽의 끝에 장식되는 것이나²⁷⁾ 山형금구와 함께 前面飾金具의 일종으로²⁸⁾ 보아 왔다. 山자형금구에 있어서 반쪽 부분의 못이 병이므로 山자형금구 자체는 그 부분에서 마무리되므로 곡옥형식금구는 전면에 장식될 장소가 없다. 고령지산동 39호분 출토의 성시구의 예로 참조할 때 화살통 자체에 붙는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에서는 山자형금구와 직교하는 양측면에 붙는 것으로 해석해 두고자 한다.

네째로 증원판형금구 2점에는 긴 鉞이 달려 있고 2점이 세트를 이루고 왼쪽의 것은 길고, 오른쪽의 것은 짧다. 증원판산금구의 부착 위치는 도계동 19호분 출토품²⁹⁾과 일본의 寺口千

26) 영남대학교 박물관 관계자의 호의와 교시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27) 崔鍾圭, 1986. 「앞글」 (주 15).

28) 全玉年, 1992. 「앞글」 (주 1).

29) 朴東白·秋淵植, 1987. 『昌原 道溪洞古墳群』 I, 138.

塚3號墳의 예에³⁰⁾ 따를 때(<그림 3> ④) ㄷ자형금구에 곧바로 이어서 연결된다고 사료되나 일본학계의 가설처럼 나무에 붙지 않고 가죽에 붙는 것이 분명하다.

③다섯째로 방형대금구의 위치를 정할 차례가 되었다. 이 방형대금구는 도계동 19호분의 출토 상태를 볼 때(<그림 3> ②) 중원판형금구의 한 가운데 붙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원판형금구의 한 가운데 부분의 ㄷ자형금구 바로 옆에서 출토되고 있지 때문이다. 방형대금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본의 하니와의 성시구 모습(<그림 3>의 ③)과 이 자체의 가운데에 방형의 구멍이 있는점에 근거해서 시병교착구로 생각되어 중원판형금구의 양쪽 바깥쪽에 각각 붙는 것으로 해석해 두고자 한다.

여섯째로 일본의 하니와에 나타난 화살통에서의 오른손 위치(<그림 3> ③)와 당시의 화살통에서 화살을 빼는 방법³¹⁾에 근거하여 화살통의 전면 가운데 부분을 비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성시구 부속구들의 위치 도시하여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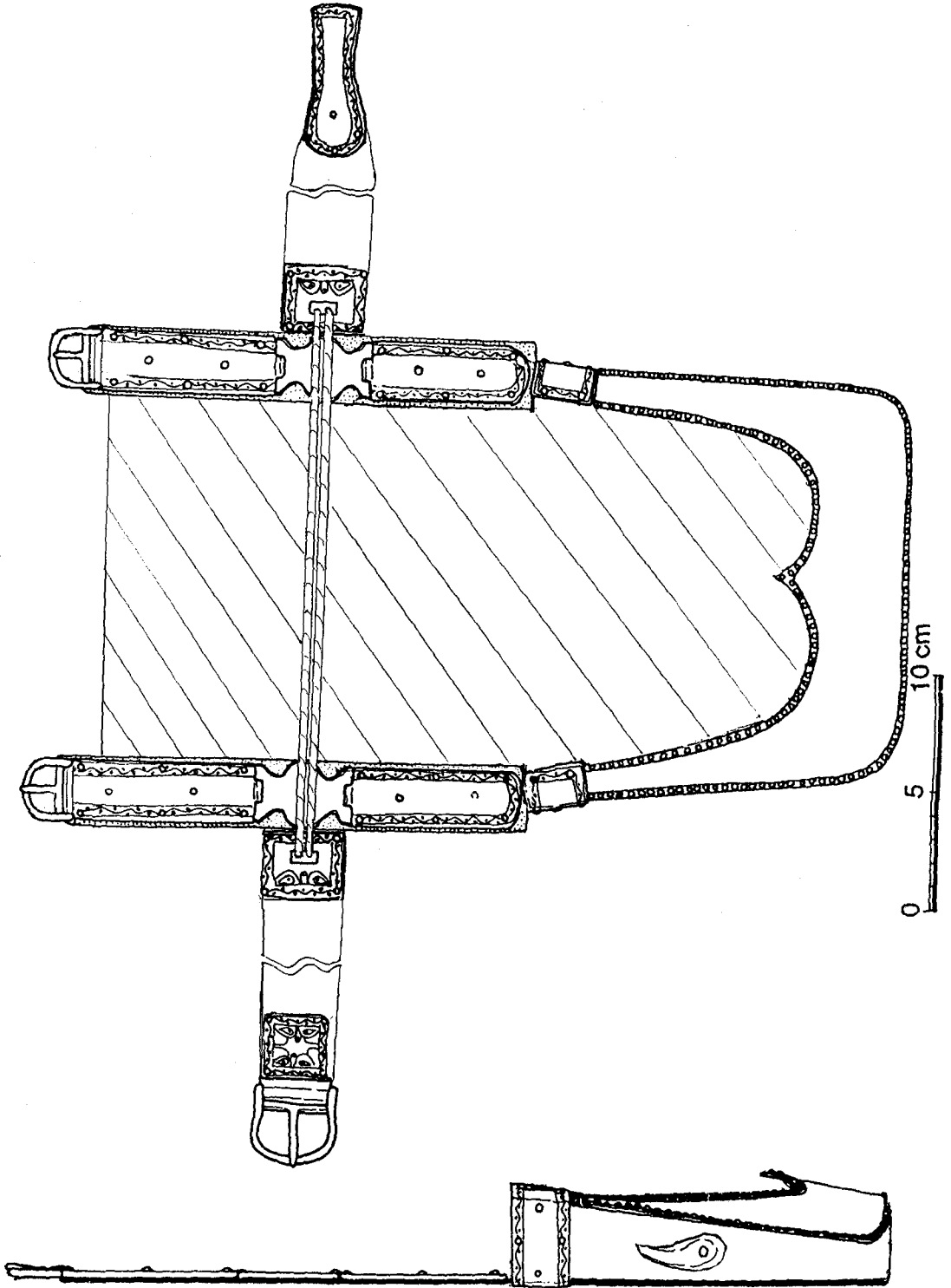
VI. 맺음말

지금까지 동래 복천동 22호분 출토의 성시구 부속구들을 중심으로 그 복원에 대해 살펴 보고, 임시 복원안을 제시하였다. 山자형 금구가 나오는 성시구의 복원은 아직까지 줄거리만 잡혀 있을 뿐, 상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는 성시구의 부속구들이 유기물로 되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진 데에 있다.

여기에서 복원에는 중원판형금구에 박힌 못의 종류를 경산 임당 7-B호의 예와 옥천 M3의 예에 따라 병으로 보았다. 도계동의 성시구 출토 상태와 일본 하니와에서의 화살통 착장 위치, 화살통에서 화살을 빼는 방법 등에 근거해서 이 성시구의 복원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하는 바이다.

30) 坂靖, 1990. 「앞글」 (주 19).

31)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金昌鎬, 1995. 「앞글」 (주 2) 참조.



<그림 4>